

● 전국도서관인큰모임 제 2주제

國家圖書館 體系의 發展方向

鄭 駉 謨
(중앙대학교 교수)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도서관협회 회원여러분, 오늘 이 “전국도서관인큰모임”에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오늘 최초로 맞는 “전국도서관인큰모임”의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큰잔치는 도서관인의 慶事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大慶事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국민공동의 書齋요, 학술발전의 產室이요, 문화의 殿堂이요, 정보센터요, 선진국의 상징인 동시에 그 필수요건이요, 온 국민에 대한 친근하고 값진 문화복지기관으로서 오늘의 이 잔치는 이러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대행진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대잔치는 우리의 歷史上 최초로 맞이한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圖書館振興法이 국회를 통과(1991.2.7)해서, 공포(1991.3.8)되었고, 그 施行令도 제정, 공포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立法措置로 文化部 主管下에 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도서관 行政部署를 文化部로 이관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도서관 文化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圖書館振興法의 立法과, 오늘 이 “전국도서관인큰모임”을 직접 주관하여, 적극 주선 해주신 李御寧 文化部長官이하 文化部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가지 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圖書館振興法의 立法추진에서부터 오늘의 이 “전국도서관인큰모임”의 주선에 이르기까지 李御寧 文化部長官은 우리 도서관계의 專門人들 이상으로 열의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분야에 해박하면서도 도서관에 대한 專門인 지식, 특히 컴퓨터에 의한 도서관의 자동화나 정보검색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한편, 일찍이 초창기부터 손수 컴퓨터로 원고를 쓰기 시작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同志長官을 만났으니 이제는 도서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지게 됩니다.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차체에 李長官님에게 결례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양만 하지 않는다면 李御寧 長官을 도서관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政府에 대한 建議

圖書館振興法과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이들 법령으로서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文化部內에 圖書館課 대신에 圖書館政策局을 신설하여 文化部의 中心部署로 삼고 우리나라의 文化政策을 수행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서관은 모든 知的文化財를 수용하고 이를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건을 조성하는 봉사기관으로서 모든 文化發展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며, 先進國들의 관례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文化部에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圖書館振興法의 입법과정에서 도서관협회는 이 문제를 이 法律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政府部署內에 係나 課도 없던 터에 갑자기 하나의 局을 신설하는데는 예로가 많고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선에서 상호 양해가 된 사항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文化發展을 위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도서관政策과 行政을 일원화하여 이를 강력히 施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도 도서관진흥법의 입법과정에서 도서관정책부서가 文化部로 이관될 경우 그 행정체계가 多元化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했던 문제입니다만 이제 教育部에 소속된 모든 學校도서관과 大學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政策과 行政이 일원화되도록 立法조치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施行하기 바랍니다. 현재 行政體系上 教育부나 內務部에 소속된 공공도서관이라 할지라도, 현재 文化部에 소속된 공공도서관과 함께 일관된 行政력이 미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국민학교를 비롯한 각급의 모든 學校와 전문대학 및 大學校에는 반드시 소정규모의 장서를 구비하고, 반드시 사서직원을 두어 도서관봉사를 하도록 “도서관진흥법”에 명백히 정해 놓고, 만일 과거처럼 이를 올바르게 施行하지 못한다면 政府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므로 이점을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국립중앙도서관의 格上과 각 道別 국립도서관 분관의 설치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 館長의 직급은 1級, 局은 하나도 없이 5課 1室 12係, 司書職 118명 行政職 27명 기타 94명 전체 239명밖에 안되는 소규모의 도서관으로 年間資料購入豫算은 이를 공개하기 마저 곤란하리 만큼 빈약합니다. 이제 겨우 도서관 건물이 외모를 갖추었을뿐 나머지는 모든 面에서 국제적인 수치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나라의 學術과 文化의 殿堂이요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의 著名한 人事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당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자랑해야 할 곳인데 과거에 그런 예가 거의 없었으며, 이를 현재의 상태로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格上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館長의 직위를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국무총리 다음가는 별정직 上位長官級으로 하되, 특히 大學者로서 長官경력을 가진 분을 館長으로 모시고 專門職을 副館長으로 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行政組織은 현재의 課와 係를 局과 課로 昇格시켜서 人才를 충원하고, 年間資料購入豫算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각 道別 국립도서관 분관의 설치문제와 전문주제분야별 국립도서관의 설립문제입니다. 앞으로 地方自治時代가 되면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해서 學校도서관과 大學도서관 專門도서관 등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국의 도서관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행정체계상 각 道別로 국립도서관 분관이 필요하며, 현대의 특징인 專門化時代에 있어서는 역시 先進國의 경우처럼 특히 의료, 농업, 공업 등의 전문주제분야별로 국립도서관이 설립되어서 전문분야별 연구에 필요한 첨단적인 연구문헌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입수하여 해당연구자들에게 적시에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각종의 도서관에 良質의 충분한 藏書를 구비할 수 있는 資料購入豫算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각종의 도서관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공공도서관이

나 학교도서관과 같이 너무나 빈약한 장서에 학생들이 시험공부나 하는 자리를 빌려주는 것이라면 도서관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공공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전락한 원인은 주로 대학입시제도에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빈약한 장서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출해서 읽을만한 冊이 없다는데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는 모든 부처의 政府刊行物들이 빠짐없이 비치 되어야 한다는 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능한 전문적인 司書職員을 적소에 두어 양질의 奉仕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봉사를 위한 3대요소는 시설, 자료, 유능한 司書로서 이 세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참다운 도서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사업계획으로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전산망조직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국도서관 정보전산망조직사업을 文化部에서 이어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 정보전산망은 전국 어디에서나 도서관 상호간에 교육정보와 학술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2. 教育界에 대하여

현대의 교육방법은 注入式교육을 지양하고 自律學習, 시청각교육, 세미나식교육 등의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교육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의 교육현장에서는 오히려 암기위주의 注入式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高等學校와 大學의 入試制度和 특히 出題方式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한편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즉 적절한 도서관시설과 충분한 良書의 구비 및 분위기조성과 진실한 독서지도 등이 형성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히 교육행정가와 교육자들이 이러한 점을 깊이 성찰하고 制度의 改善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自律學習의 風土 조성을 통해서 진실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급의 학교교육과정에서 自律學習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면 大學에 진학해서 마저도 自律的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고, 강의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學習에 불안정을 느끼게 되며, 나아가서는 大學을 졸업한 후에도 사회에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의 독창력과 진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구나 현대는 情報化社會로서 과거에 비하여 각급의 학교교육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이나 學問의 양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된 교과서나 참고서만을 통해서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은 마치 콩나물을 기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도 토의의식이나 시청각적인 매체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도서관에 다양한 양질의 관계자료를 구비하여 이러한 도서자료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學習을 하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3. 出版界에 대하여

앞으로 도서관계와 出版界와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의 3大要素는 ① 施設 ② 資料 ③ 司書입니다. 이 세가지 요소는 모두 不可分한 것이지만 이중에서도 특히 본인은 資料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고, 아무리 유능한 司書가 있어도 양질의 풍부한 資料가 없이는 도서관 봉사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서관 자료를 공급해주는 분야가 바로 出版界입니다.

과거에는 도서관정책이 너무 미진했고, 특히 가장 많은 도서관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는 도서구입예산이 거의 배정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자료의 공급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서관진흥법 제5장 제3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국의 국민학교에서부터 中學校, 고등학교, 각급 학교, 전문대학, 大學校에는 반드시 일정규모의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장 제31조), 大都市의 區단위와 지방의 郡단위까지는 반드시 일정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제3장 제21조), 이들 도서관에는 또한 일정규모의 도서자료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제1장 제5조) 있으므로 이들 도서관에 공급하게 될 도서자료의 규모를 대략 예상해 본다면; 1990년을 기준으로 우선 국민학교도서관이 6,396개, 중학교도서관이 2,450개, 공공도서관이 269(市立 69, 區立 63, 郡立 137)개 모두 9,115개관입니다. 이들 도서관에 이동용 도서자료를 일개 관당 평균 5부씩 공급한다면 모두 약 45,575권이 되며, 연구기관의 도서관이나 정부기관 또는 은행 언론기관등의 전문도서관이나 기업체도서관은 제외하고, 고등학교도서관이 1,672개관, 공공도서관 269개관, 전문대학과 대학교도서관이 221개관 모두 2,162개관에 敎養 및 學術도서를 일개관당 평균 5부씩 공급한다면 10,540권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도서관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良質의 도서가 출판 보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良書選定委員會를 두어 매년 良書를 선정해서 특별히 우수한 저작에 대해서는 우수저술상을 수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비롯해서 기타의 良書에 대한 目錄을 작성하여 모든 도서관에 이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각급 도서관에서는 이 良書目錄에 수록된 도서를 주로 구입하여 도서관장서를 구성하도록 권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先進 外國의 경우처럼 出版界에서는 이들 良書目錄에 수록된 도서로서 도서관장서로 공급될 도서는 특별히 좋은 紙質과 완벽한 製本으로 製冊해서 도서관에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규모의 확실한 도서자료의 공급처만 확보된다면 우리나라의 出版界도 대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며, 著述家들도 안심하고 서로 앞을 다투어 연구하고 良質의 도서를 저술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出版界의 발전과 도서관계의 발전이 동시에 우리나라의 學術의 발전과 전반적인 文化의 발전을 유발시키고 產業의 발전을 유발시켜서 마침내 先進國으로의 도약이 달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歷史的으로 최초로 맞이하는 文化暢達革命 또는 文化革命이며 우리는 모두 이 文化革命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3년전에 범국민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88올림픽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므로써 우리나라의 국위를 세계만방에 선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려는 이 文化革命은 올림픽경기와는 비교도 안되는 대단히 높은 次元의 큰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현대는 情報化社會이며 이 文化革命은 앞으로 정보화사회를 주도하게 될 知識產業이나 情報產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物質的 資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더욱 절실한 것이며, 國運을 좌우하는 중대한 大課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대한 大文化革命에 우리의 총력을 경주합시다.

4. 藏書家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藏書의 양이 많거나 적거나는 불문하고, 藏書家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개인의 장서가 점차 무의미한 것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의 장서가 그 子孫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家寶였고, 자랑이었으나, 이제는 하도 많은 文獻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主題分野의 文獻도 한 개인의 능력으로는 그 소재마저도 파악할 수 없고, 이를 모두 수집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상상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들 文獻을 모두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藏書가 1,000권만 되어도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놓지 않으면, 소장되어 있는 책마저도 찾지 못해서 읽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차라리 잘 정리된 도서관 장서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더구나 큰 家屋이 아니면 그 보존조차 어렵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藏書家 여러분들은 앞으로 본인이나 본인가족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느 도서관에 藏書를 기증하여, 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증되는 장서는 본인의 藏書임을 영원히 남겨서 보존할 수 있는 동시에 잘 정리되고 관리되어 자기 자신의 書齋처럼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이용되어 文化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장서가 여러분의 그 死藏된 장서를 특히 공공도서관으로 옮겨서 본인의 서재인 동시에 萬人공동의 서재가 되도록 꾸며서 학술의 발전과 文化의 발전에 공헌하게 합시다.

5. 一般國民에 대하여

일반국민 여러분, 다시 새로이 출발하게 되는 공공도서관은 각 지역 사회주민의 공동의 서재요, 平生教育의 장이요, 모든 생활정보센터로서 우리들의 친숙한 文化福祉施設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文獻이 폭발적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한 冊을 모두 구입할 수도 없거니와, 이를 굳이 구입할 필요도 없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는 것이 더욱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에는 이러한 요구 때문에 도서관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의 서재와 같은 성격과 기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그 지역사회주민들이 어려서부터 平生동안 공공도서관에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平生教育의 場”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平生教育은 先生과 학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冊이 바로 先生이요, 그 冊을 읽는 사람이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공공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司書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醫師나 法律家로서의 전문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知識이나 學問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봉사기관입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가장 으뜸가는 친근한 文化福祉機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공도서관은 子女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대의 학생들은 가정에 독방으로 공부방을 차려 주어도 이를 마다하고 讀書室로 가거나, 과외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생활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그들의 동료나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子女들이 父母나 가정의 어른들과 함께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다면, 父母와 子女가 같이 생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한 父母님들도 항상 善行을 하고 독서를 하면, 子女들도 이를 본받아 책을 읽고 공부도 잘해서 善良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順理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은 教育福祉機關이라고도 할 수 있고, 靑少年善導機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우리들의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都市에서는 적어도 洞단위까지 그리고 지방에서는 面단위까지 설치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政府에서는 국민의 文化的 福祉를 위해서 모든 도서관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또한 도서관 이용자인 국민 여러분들은 공공도서관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아끼고 가꾸어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서관을 통해서 政府와 國民이 일체가 되어 先進 文化福祉 國家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